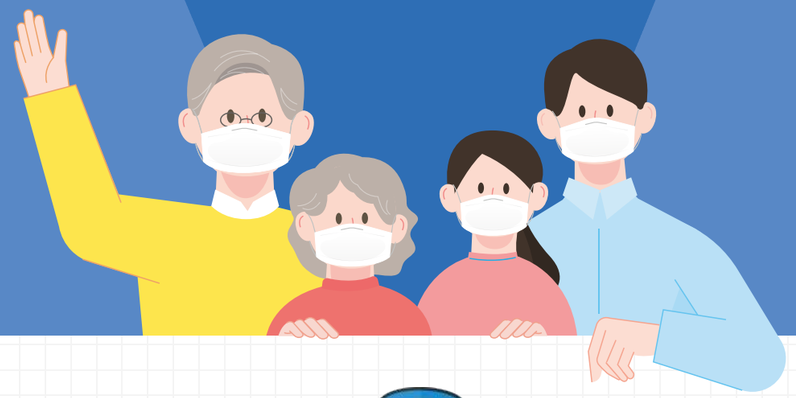
교육부

교육가족 여러분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꼭 챙겨주세요!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5 vol.466
2021 MAY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네 꿈을 펼쳐라
부안여고 동아리 '가리사니'
"우리가 매체가 되어 사회와 타인을 연결~"

07 꿈이 영그는 현장
서울교동초등학교
도심 속 작은학교 전통과 미래가 만났다

12 교육포커스
자녀와의 소통은 안녕하십니까?

50 진로직업인
정보 보호 전문가_ 지한별 연구원
"보안 지키는 선의의 해커,
수많은 유혹 이겨내야"



교육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교육부

미래교육센터 그곳이 궁금하다!

예비교원·현직교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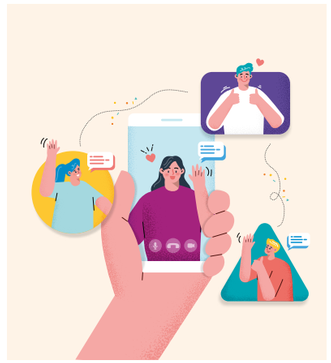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66 **2021 MAY**

12
교육포커스
자녀와의 소통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게을러진 생활 습관과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무거운 요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소통을 위한 감정 코칭 방법 등을 소개한다.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올바른 대화와 칭찬법
아이의 변화를 이끄는 감정 코칭





27
특별기획
비대면 시대, 소통에서 답을 찾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이루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소통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대면 시대에 학교 구성원 간의 공감과 소통으로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례, 학생 간·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노하우를 소개한다.

10년 차 혁신학교의 소통 비결은 '자발성'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깨워라
비대면 소통 시대, 관계기술의 열쇠로 풀다
교사-부모가 뭉치면 아이들이 보인다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CONTENTS

05
vol.466 **2021** MAY



전북 부안여고 '가리사니' 동아리 학생들은 세상에 호기심을 품고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친구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학생들이 봄 햇살 가득한 교정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교육포커스
자녀와의 소통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올바른 대화와 칭찬법
아이의 변화를 이끄는 감정 코칭

27 특별기획
비대면 시대, 소통에서 답을 찾다
10년 차 혁신학교의 소통 비결은 '자발성'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깨워라
비대면 소통 시대, 관계기술의 열쇠로 풀다
교사-부모가 뭉치면 아이들이 보인다





04 **네 꿈을 펼쳐라**
부안여고 동아리 '가리사니'
"우리가 매체가 되어 사회와 타인을 연결~"

07 **꿈이 영그는 현장**
서울교동초등학교
도심 속 작은학교 전통과 미래가 만났다

18 **삶과 교육**
충남 대천여중 서승제 교사
사랑과 감사, 배려 가르치는 합창
노래보다 좋은 인성교육은 없을 것

22 **교실혁명**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과학수업
최고의 관찰가 파브르 되어보기!

40 **정책을 말하다**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 성장 이끈다

43 **교육자치시대**
충청북도교육청_ 초록학교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지구 살려요"

46 **교육웹툰**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48 **이달의 교육뉴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인재 7만 명 양성 外

50 **진로직업인**
정보 보호 전문가_ 지한별 연구원
"보안 지키는 선의의 해커, 수많은 유혹 이겨내야"

54 **일상의 쉼표**
여주, 시간의 주름을 펴다

58 **이야기 인문학**
행동하는 소비자들, "나는 소비로 세상을 바꾼다"

61 **명예기자 리포트**
플랫폼 '온학교.com' 첫 수업 현장 外

64 **숫자로 읽는 교육**
77.1% vs 12.2%

전북 부안여고 동아리 '가리사니'

"우리가 매체가 되어 사회와 타인을 연결~"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힘을 일컫는 '가리사니'의 뜻처럼 부안여고 '가리사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나아가 배운 것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실천하는 학생동아리이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따스한 4월 중순, 가리사니를 취재하기 위해 부안여고를 찾았다. 12명의 동아리원과 올해 졸업한 2명의 졸업생이 반갑게 취재진을 반겨준다.

글 _ 이순이 편집장



1

가리사니

청소년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소통

가리사니 소개를 부탁하자 이라영(3학년) 학생은 "매체비평동아리로 알려졌지만, 사실 인권, 환경, 기후 위기 등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며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서 우리가 매체가 되어 사회와 타인을 연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2013년에 결성된 '가리사니'는 독서토론, 영화감상토론 등 매체비평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정세청세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세청세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청소년 인문 토론의 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부당함과 불편함, 해결방법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정의로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 목표다.

2013년 부산 정세청세 토론회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전주·광주·대전 정세청세에 참석했으며, 2018년부터는 정세청세 토론 기획·운영단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이슈를 발굴하여 토론을 이끌어 왔다. 코로나19로 대면 토론이 어려웠던 지난해에는 공생을 위한 삶의 기술,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의무, 세계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 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김나영(2학년) 학생은 "자연과의 공생을 무시하는 현대인, 공생은 뒷전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됐으며 소통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라영(3학년) 학생은 "정세청세를 통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의문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

12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이 모인 '가리사니'는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가리사니로 이어진 졸업생과 재학생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2

관심-전문가 만남-깨달음-공유·실천

또한, 가리사니 학생들은 매년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최근 2년간 에너지슈퍼마켓 김소영 대표, 열정에 기름붓기 표시형 대표, <나쁜 뉴스의 나라> 조윤호 기자, 카이스트 전치형 교수, 그레이프랩 김민양 대표, 세바시 조재형 PD, 류승연 작가 등을 만났다.

그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구에 관심이 컸던 학생들은 에너지슈퍼마켓 김소영 대표와의 만남을 계기로 탄소 배출과 육식의 문제, 우리나라 전력시스템까지 생각하는 등 기후 위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김정안(20) 씨는 "당시 김 대표님으로부터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와 전기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결핍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탄소 배출에 대해 듣고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에너지시스템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에 에너지공학과에 진학하게 됐다."라고 했고 송지현(20) 씨는 "가정과 기업에서 자체생산한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가상발전소에 관심이 생겼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IT 기반의 기업을 창업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소영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은 탄소 배출의 80%를 축산업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탄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육식을 줄이

자는 의미로 채식 캠페인을 벌이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육식의 문제점을 친구들에게 알렸다. 같은 해 전 세계 청소년이 함께하는 '스쿨 스트라이크'에 동참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홍보했다. 그 밖에도 학생들과 많은 논의 끝에 학교에 건의해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미트 프리데이'를 진행해 왔다. 가리사니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큼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한편, 가리사니는 매년 동아리 활동을 정리하여 잡지를 만들어 왔다. 총 8권의 잡지에는 매체비평을 비롯해 정세청세 토론회 소감, 그동안 인터뷰했던 전문가와의 대화 등 소통의 흔적들이 빼곡하게 담겼다. 올해에는 '영화'를 주제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뤄볼 예정이며, 현재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다.

Mini Talk



이라영 3학년

지난해 공생을 주제로 정세청세 토론도 진행했고, 그레이프랩 김민양 대표님과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지속 가능성과 공생에 대해 한 층 배운 것 같아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환경과 디자인을 연결해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예쁘면 좋은 것이라는 틀이 있는데, 디자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김나영 2학년

가리사니는 울림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 인간에게는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정세청세 활동을 하면서 또래와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나의 울림을 가리사니 잡지에 표현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어요.



심은수 3학년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섭외와 인터뷰라는 것을 해봤어요. 에너지슈퍼마켓 김소영 대표님과 조재형 PD님을 인터뷰하면서 제 눈높이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재형 PD님을 통해 '딴짓'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나의 딴짓'에 대해 탐구해 보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 이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데,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양한 활동이 도움이 돼요.



김윤진 2학년

PD에 관심이 많아 은수님과 선한 영향을 주는 분을 찾다 세바시 조재형 PD님을 알게 됐어요. 연출가로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섭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았죠. 우리들의 꿈과 열정을 담아 메일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PD라는 직업은 물론이고 그분의 가치관,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신은결 3학년

저는 정세청세 활동이 참 좋았어요. 선후배 간 'OO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새롭게 안 것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실천해 나가는 과정도 좋았고요. 정세청세에서 공유무역에 대해 알게 됐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해서 학교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이 아닐까요.



김해강 2학년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 알리는 환경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후 위기 속에서 에어컨 없는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의 하나로 채식을 시작했어요. 채식을 실천하며 주변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어요.



김세영 3학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가짜뉴스를 접하며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의 유형,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알기 쉽도록 전시했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거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민영 2학년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외 정세청세 토론회가 교내활동으로 전환되면서 가리사니 부원이 아닌 저에게도 참여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계몽이 아니라 전이되어 가면서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친구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공유하고 싶어 지원했어요.



서울교동초등학교

도심 속 작은학교 전통과 미래가 만났다

지난 1894년 설립된 서울교동초등학교(교장 김정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초등교육기관(당시명 관립교동왕실학교)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지만, 한때 5,250명에 달했던 전교생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2011년 97명까지 급감했다. 학교는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특색교육을 대안으로 삼았고, 2021년 현재 전교생은 185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교동초를 방문해 도심 속 작은학교가 살아나는 방법을 알아봤다.

글_양지선 기자







1



2



3

> 127년 전 세워진 학교는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서울교동초등학교는 역사적 장소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다. 근대식 건축양식을 그대로 살린 고풍스러운 교문의 양쪽에는 '관립교동소학교'와 '서울교동초등학교'라는 문패가 나란히 달려있다. 127년 전 세워진 학교는 옛 이름을 간직한 채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학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서울 4대궁과 종묘, 북촌한옥마을 등이 지척이다.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역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교육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이지만, 거주지가 아닌 상업지이다 보니 학구 내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었다. 1963년에 59학급 5,250명의 학생이 다녔던 학교는 2011년에 7학급 97명까지 전교생이 급감했다. 학생 수 늘리기에 나선 교동초는 2017년 서울형 작은학교로 지정된 후 공동학구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전입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1학년 신입생 32명 중 5명만이 학구 내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서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등 서울 내 10개 구와 멀게는 경기도 남양주, 일산에서도 오고 있다.

1 교동초는 교문에 학교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건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개교 당시의 건축양식으로 재정비했다.

2 127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는 작은 박물관이나 다름없다. 졸업생 선배들이 쓰던 책걸상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3 올해 역사관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 6학년 이가영·최수아·박건휘 학생(왼쪽부터). 관심 있는 사료를 골라 담당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 연습한다.

공동학구제 도입·탄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수 꾸준히 증가

현재 전교생은 185명으로 2017년 126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학생 수가 적어 매일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활성화돼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방과후학교는 올해 25개 강좌, 49개 반을 개설해 학생 1인당 3개 강좌씩 들을 수 있다. 영어, 창의 수학, 생명과학 등 교과 관련 강좌와 공예, 요리, 미니어처 만들기 등 취미 교실을 비롯해 축구, 농구, 바이올린 등 예체능 강좌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소 5명부터 개설되게 했다. 돌봄교실은 총 3반으로 45명을 수용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김정이 교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학교 SNS와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비교하며 자녀가 다닐 학교를 고르는데, 교동초 프로그램이 탄탄하다는 것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학교는 2019학년도에 1학년 입학 대기자만 80명을 기록했으나 교실이 부족해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학교 특색 살린 전통예술·역사 계승 교육

학교는 학생 맞춤형 수업, 상담, 지원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전통 연계 프로그램을 강점으로 꼽았다. 현재 한 학급당 평균 인원은 15명. 덕분에 수업 지도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은 줄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게 가능해졌다. 담임교사는 특별히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과 사제 멘토링 시간을 통해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학교생활에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특색교육 활동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1인 1국악' 교육이 있다. 1~2학년은 국악 동요 부르기와 소고, 3~4학년은 가야금, 5~6학년은 사물놀이를 배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연주하는 것이 힘든 만큼 현재 고학년도 가야금으로 대체해 배우고 있다. 이성윤 교사는 "아이들이 국악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배운다."라고 전했다. 학년 말에는 전교생이 강당에 함께 모여 발표회를 실시한다. 판소리, 마당놀이,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공연단을 초청해 학부모와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함께 즐기는 예술공연 관람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인 만큼 학교 역사 계승 교육도 이뤄진다. 건물 4층에 마련된 교동초 역사관 '나이테1894'는 2,011점의 사료가 있는 작은 박물관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역사관 도우미로서 안내를 맡는다.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되는 역사관 도우미는 관심 있는 사료를 골라 담당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 연습한다. 올해 역사관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 박건휘 학생은 "학교에 대한 역사를 배우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학생은 "우리 학교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저학년 후배들에게 설명해주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1층 현관에 옛 학교 건물과 현재 학교 건물을 비교한 미니어처와 디지털 역사관을 마련했다. 디지털 역사관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동초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문도 학교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건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개교 당시의 건축양식으로 재정비했다. 덕분에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도 학교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됐다.





4 건물 4층에 마련된 교동초 역사관 '나이테1894'에는 2,011점의 사료가 있다. 학교는 지난해 역사관을 재정비하고, 1층 현관에는 디지털 역사관도 마련했다.

5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운현궁에서 펼쳐진 예절교육 모습(코로나19 이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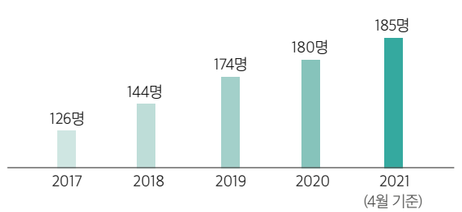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 행복 쌓기

교동초는 지역과 함께 하는 '어울림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통문화예술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전통 교육 시간에는 각 분야 장인들의 강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부채·족자·솟대 만들기, 지푸라기 공예, 칠보공예 체험이 진행됐고, 인근 운현궁에서는 저학년생들의 예절교육이 이뤄졌다. 김정이 교장은 "장인들이 강사료 없이 재료비만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교육해주신다."라며 "전통문화예술협회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덕분에 도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 소외계층 나눔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지역자치센터와 쪽방촌을 방문해 헌 옷, 책, 생필품, 김장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도 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전통 음식을 만들며 나눔을 이어간다.

교동초는 올해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활동과 연수를 지원하고, 특히 원격수업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학교는 이미 전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태블릿PC 108대를 확보했다. 건물 2층에는 스마트 교육을 위한 '올제누리실'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곳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3D펜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도 이뤄질 계획이다.

[그림] 교동초 학생 수 추이



Mini Interview

김정이 서울교동초등학교 교장



Q1 _ 학교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

다 함께 즐거운 교육을 하고 싶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매일 아침 교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한 명씩 살피고, 소규모로 학생들을 모아 '눈맞춤 시간(인성교육)'을 가진다. 인근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책방 나들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케이트와 스키캠프도 소소하지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다.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아이가 학교에 더 오고 싶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급식 식단 조정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배려다.

Q2 _ 학교 운영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나갔나?

교원 수가 적다 보니 담임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기도 하는데, 교육지원팀과 교장·교감이 더 발로 뛰면서 최대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최근 학생 수가 늘면서 교실 수가 증가한 대신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이에 건물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특별교실과 다용도 수업 공간을 확보했다. '상상누리실', '라온누리실', '창의누리실', '지혜누리실' 등 4개의 공간은 소체육 활동, 음악 수업, 방과후학교, 학생 자치, 기초학력 지원 수업, 학교 행사공간, 미술 작품 전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Q3 _ 향후 학교 운영 계획은?

교동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이어가고, 우리 학교와 비슷한 소규모 학교들과 작은학교로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교동초'라는 이름의 학교가 많은데, 전국의 교동초등학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싶다. 학교의 상징성을 살려 각국 최초의 초등학교와 교류하는 것, 교동초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테마여행도 기획하고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업에 본질을 두고 아이들이 배움에서 즐거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올바른 대화와 칭찬법

글 _ 이향숙 한국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장
(숙명여대 아동심리치료 박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게을러진 생활 습관과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무거운 요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소통을 위한 감정 코칭 방법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현재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재택근무,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다 보니 자연히 가족 모두가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점차 불편한 점도 보이고 서로 잔소리도 하게 되어서 새로운 갈등이 쌓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럴 때 부모가 자녀와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교육하는 것은 자녀의 반감만 일으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의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할 때는 훈육과 지시 대신 경청과 칭찬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칭찬도 적절한 상황에서, 그리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의 칭찬이 아이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만일 아이가 과제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고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하던 일에 집중하며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어, 잘했어. 역시 훌륭해."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자신의 성과에 대해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약 7세 때부터 상대방의 표정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으며 '하얀 거짓말', 즉, 상대방을 위해 하는 거짓된 말을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칭찬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면 아이는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진심으로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아이의 성장에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아이의 성향(기질)에 따른 칭찬 방법, 좋은 칭찬, 나쁜 칭찬,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자녀의 성향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행동 파악 및 대응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질(Temperament)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향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어떤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만, 어떤 아이는 말을 않거나 주먹을 꼭 쥐고 분노를 표시한다.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아이는 세상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기질은 몇 가지 특질(Trait)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여러 분류법과 조합 중 아래의 간단한 분류법을 소개한다.

☑ 자극 추구 성향을 지닌 아이

자극 추구 성향인 아이들은 새로운 활동에 금방 개입하고 관심을 보이며, 세심하지 못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하며, 규칙을 위반할 확률이 높다. 높은 자극 추구 성향과 낮은 위험회피 성향이 더해진 아이들은 방치하고 성장할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에 지루함을 표시할 때 마음을 읽고 이해해주어야 한다. "네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힘들구나. 오늘은 그럼 1~5페이지까지 하고 우리 밖에 놀러 나가는 것이 어떨까?"와 같이 아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내심을 길러 작은 성취를 얻었을 때 칭찬해주어야 한다.

☑ 위험회피 성향을 지닌 아이

위험회피 성향의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며 두려움이 많고 쉽게 긴장을 한다. 부끄러움이 많고 비관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위험회피 성향인 아이들은 내향적 성격과 불안, 그리고 관계에서 회피적 성향을 보일 위험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에 쉽게 당황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일상에 변화가 생겨야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설명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상의존 성향을 지닌 아이

보상의존 성향인 아이는 돈과 같은 실질적인 보상에 반응하며, "잘했어"와 같은 사회적이고 언어적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 자신이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협상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가 직접 롤모델이 되어 주거나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비물질적 인정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 지속 성향을 지닌 아이

지속 성향을 가진 아이는 주어진 일에 과하게 집중하며 성취욕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성취욕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해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와 같은 칭찬을 함으로써 과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

부모의 올바른 칭찬법

☑ 나이에 맞는 칭찬하기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내재해 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강하며, 어린아이들은 당당히 요구해서라도 칭찬을 받으려 한다.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타인이 하는 칭찬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가치관과 평가의 의도를 분석하므로 이를 유의하는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진실한 칭찬과 거짓된 칭찬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야만 아이가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

☑ 구체적인 칭찬하기

"우리 ○○이 잘했어!" "○○는 이런 것도 잘하네~" 이 두 가지 칭찬 모두 아이의 이름이 구체적이라는 것 이외에는 무슨 행동을 칭찬하는지 알 수 없다. 아이의 어떠한 행동을 칭찬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함과 동시에 어떠한 행동이 칭찬으로 이어졌는지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오늘 청소하는 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 신발장에 ○○이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줘서 청소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 아침에 ○○이 덕에 신발을 금방 찾을 수 있겠네!"와 같이 구체성을 가진 칭찬은 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로 작용한다.

☑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칭찬하기

아이가 화를 내다가 진정한 이후 부모는 아이가 진정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한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배제하고 진정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이가 더욱 크고 강렬하게 느꼈던 '화'나 '분노'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원인에 대한 공감과 함께 칭찬해주어야 한다.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해서 ○○이가 화가 났구나. 화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야. ○○이가 크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이가 화를 조절한 건 참 잘했어."

☑ 아이의 능력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주기

칭찬할 때 아이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아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의지를 꺾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칭찬은 결과 중심적이기보다 과정 중심적이어야 한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수학 문제를 풀게 한 후, 한 집단은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게 하고, 다른 집단은 문제를 푸는 데 노력한 것이 좋았다는 칭찬을 받게 했다. 이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문제해결에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실패를 견디는 힘이 부족해 도전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제를 선택할 때 성공을 위해 쉬운 문제를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에게서는 끈기를 보이는 모습이 추후 나타났다. 이 아이들은 과정을 탐색하고 노력하는 즐거움을 찾느라 과제를 선택할 때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아이의 능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노력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의 변화를 이끄는 감정 코칭

글 _ 이정화 한국아동심리코칭센터 소장

#올해로 4학년인 아들이 오늘도 식탁 앞에서 짜증과 불만을 가득 안은 채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숙제 먼저 해놓고 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일까요? 아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부모라면 어떤 행동부터 할까? 참아주면서 말없이 기다리는 부모님, 그렇게 짜증 내려면 하지 말라는 부모님, 이런 식으로 매일 한다면 혼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부모님, 안쓰러워하며 그냥 자고 새벽에 하라는 부모님 등 여러 유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감정 코칭의 의미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감정 코칭이란 코칭을 통해 감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숙제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 혹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의 감정을 잘 반영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감정 코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01 반영

반영이란, 말 그대로 아이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것이다. 부모인 나의 판단과 기준은 내려놓고, 온전히 아이를 비추어주는 것이다. 위의 상황에서 '화남', '안쓰러움', '걱정됨', '짜증'과 같은 부모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다. 만약 내 기분이 여기에 투영된다면 제대로 된 거울의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은 평가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숙제를 안 끝냈어?"(평가) ➔ "숙제를 계속하고 있구나"(관찰)

02 감정과 욕구

보통 아이들에게 공감해준다고 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정 코칭에서의 목표는 감정이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욕구와 의도가 있고, 그 욕구 안에는 감정과 생각이 포함된다. 위의 사례에서 아이의 욕구나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숙제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감과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껴가면서도 숙제를 하는 것이다. 행동만을 지적하면 그 행동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다. 행동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읽어줄 때 아이는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이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이왕 할 거면 짜증 내지 말고 해!"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지적)
➔ "그렇게 힘든데도 하는 것을 보니 숙제를 꼭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행동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알아줌)

03 행동을 이끄는 질문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 행동할 수 있으려면 먼저 원하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하고, 그다음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과 욕구를 인식한 아이들은 이미 원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때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해줌으로써, 앞으로의 행동 방향이나 해결책을 찾게 돕는 것이다. 아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은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을 파헤치는 질문이 아닌, 현재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질문이어야 한다. 과거 질문은 변명이나 방어, 후회 등으로 현재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와 관련된다면, 미래 질문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도록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뭐 하느라 숙제를 아직 못했어?"(과거로 회귀하는 질문)
➔ "네가 숙제를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미래지향적 질문)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이 변화했을까? '반영' 단계에서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것이다.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는 단계에서는 미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긍정적 의도를 알게 되므로, 짜증 났던 감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의지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행동을 이끄는 질문' 단계에서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듯 감정 코칭은 단지 마음을 알아주거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받는 주체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인식하여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잘 알고 상황에 맞추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물론,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능력,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율성까지 발달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들 얘기한다. 작은 습관 하나, 부적응적인 행동 하나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긍정적 에너지와 욕구를 이해해주는 환경이 있다면 아마도 기꺼이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이다.

> 감정 코칭은 코칭을 받는 주체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인식하여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기술이다.



사랑과 감사,
배려 가르치는 합창

노래보다 좋은 인성교육은 없을 것

옥같이 예쁜 아이들이, 옥같이 맑은 소리로 노래하는 곳, '옥갓티 코러스' 합창단이다. 충남 대천여중 서승제 교사가 부임하면서 창단한 이 합창단은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6차례 우승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감사, 배려'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다는 대천여중 서승제 교사를 만났다.

글 _ 김혜진 객원기자



수도권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주말엔 학교에 내려와 예고 입시를 앞둔 제자를 지도했던 서승제 교사의 일화는 참스승의 의미를 일깨운다.

66
합창음악이야말로
학생들이 '사랑과 감사, 배려'를 표현하고
배우는 가장 좋은 장르 중 하나다.
99

합창은 자신의 소리를 줄이면서 다른 연주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음악이다. 충남 보령시 대천여중(교장 이상규) 서승제 교사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주로 이 합창음악 연구와 지도에 매진해 왔다. 이곳 대천여중에 부임하자마자 결성한 '옥갓티 코러스'는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여섯 차례나 차지하는 등 청소년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왔다('옥갓티'는 이 지역에서 예부터 전해져 오는 지명 '옥간터'에서 따왔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음악가의 꿈을 포기하려는 학생에겐 사교육 없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 교사는 또 2007년부터 보령시립청소년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지역사회의 합창문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합창음악은 곧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2004년에 처음 이곳에 부임할 때만 해도 도서벽지는 물론 인근의 탄광촌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옥같이' 예쁜 목소리를 가졌지만, 음악가를 꿈꾸기에는 가정형편 등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도 많았죠. 발성 면에서 타고난 재능과 좋은 소리를 가진 아이들도 꽤 있었고요. 음악 교사로서 이 아이들이 음악적 기량을 계속해서 갈고닦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부임하자마자 그해 바로 합창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서 교사가 직접 합창 지도를 통해 배출해낸 제자는 대략 1,000여 명을 넘고 있다. 첫 부임지였던 사립학교 시절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란다. 이들 중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활동하는 등 프로 성악가들도 여럿 배출됐다. 졸업생 선배들은 또 매년 '옥갓티 코러스' 정기연주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멘토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 교사는 "합창음악이야말로 학생들이 '사랑과 감사, 배려'를 표현하고 배우는 가장 좋은 장르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맞추면서 화음을 만들고, 함께 노래하는 행위만큼 좋은 인성교육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한다. 이는 곧 그가 30여 년 동안 음악 교사로서 교실수업 외에도 합창단 운영과 합창동아리 지도교사 등을 지속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옥갓티 코러스'는 해마다 40명 남짓한 학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올해는 3학년 단원이 부재한 기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1~2학년생들이 연습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연대회나 연주회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쯤에는 부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옥갓티 코러스' 합창단 아이들이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감사가 가득했던 2015 정기연주회

'옥갓티 코러스'를 창단하던 초기에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성악적 재능이 돋보이는데도, 학업에 방해된다면서 합창단 활동에 손사래를 치는 학부모도 있었다. 서 교사는 몇 번이고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그 아이를 음악가의 길로 인도했노라며 전하기도 했다. 또 '옥갓티 코러스'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후부터는 학부모합창단도 결성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합창단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2015년의 정기연주회는 저로서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추억이 남아 있는 이벤트였어요.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합창단이 모두 하나의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는 동안, 연주회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었죠."

2015년 초, 서 교사는 암 진단을 받으면서 잠시 학교를 쉬어야 했다. 1년 내내 학교를 비울 수가 없어 여름방학 기간과 연계한 병가를 내야 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주말엔 학교에 내려와 학생들을 지도했다. 서 교사는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 온 과정들을, 또 예고 진학을 앞둔 학생이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치료 기간임에도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선생님의 투병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은 경연대회 때마다 더욱 분발했고 그해 '옥갓티 코러스'는 전국대회에서 두 개의 상을 연거푸 받았다. '옥갓티 코러스'는 지금까지 대상 6차례를 비롯하여 모두 11회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유 중이다.

"학창 시절에는 저 역시 성악가를 꿈꾼 적이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정형편도 기울게 되면서 그 꿈을 내려놓게 되었죠. 당시 독학으로 화성학을 공부하면서 작곡을 통해 그 아쉬움을 달랬었습니다. 비록 저의 꿈은 오래전 유보됐지만, 우리 아이들의 진로지도에 제가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매달렸던 연유이기도 합니다."



1



2



3

1 합창음악이야말로 학생들이 '사랑과 감사, 배려'를 표현하고 배우는 가장 좋은 장르 중 하나라는 서 교사가 3학년 학생들과 음악수업을 하고 있다.

2 3 합창음악은 도공이 질그릇을 빚어 내듯이 한 호흡, 한 호흡, 시간과 기나긴 싸움을 하듯 갈고닦아야 한다는 서 교사가 대천여중에 부임하자마자 결성한 '옥갓티 코러스' 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모습

성악은, 그리고 합창음악은 도공이 질그릇을 빚어 내듯이 한 호흡, 한 호흡, 시간과 기나긴 싸움을 하듯 갈고닦아야 한다고 전하는 서 교사.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베이스인 본래 음역대를 잊고, 마치 테너와 같은 음역대의 발성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면서 그는 웃었다.

"정년 후에도 지역에서 음악봉사 계속할 터"

"음악 교사인 제게 합창음악의 교육적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분이 함태균 교수님이셨어요. 합창음악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 대단하셨죠. 군산시립합창단을 창단하기도 하셨고요. <예맥 아라리>, <가시리> 등 다수의 합창 명곡을 직접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소탈하신 성품인 데다 제자들에게 탈권위적이셨고, 늘 소통을 강조하던 분이셨어요. <예맥 아라리>는 저희 '옥갓티 코러스'가 부천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에서 연주하여 대상을 받기도 했었죠."

합창음악 예찬자로서 십수 년 전만 해도 짜릿한 그 묘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차 향유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는 서 교사. 앞으로 정년을 4년 앞두고 학교에서도 합창음악 교육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예정이란다. 또 정년퇴임 후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 봉사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음악의 가치는 그 어떤 예술 장르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일상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예술인 단체가 상생하면서 문화적 토양이 다져지고,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보령지역의 자랑인 '옥갓티 코러스'가 가교가 되어 연주 활동도 잘 조율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더욱 많은 합창단과도 교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6일, 대천여중 음악실에서 만난 3학년 유아현 학생은 "음악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도 컸지만, 학교에 오면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라면서 서 교사를 자랑했다.

서승제 교사는 지난해 12월, 학교현장의 합창음악 발전과 사교육 없는 진로지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0 올해의 스승상' 최종 6인에 선정됐다.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과학수업

최고의 관찰가 파브르 되어보기!

글_류은실 경북 선산초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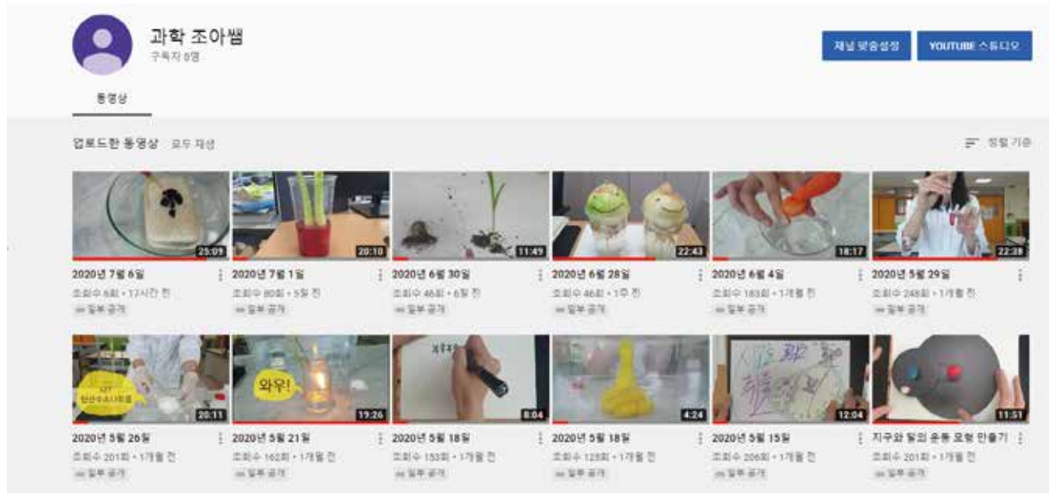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며 배움을 일구어 가던 익숙한 교실 풍경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비대면·비접촉이 당연시되는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됐다. 교사와 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책상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도 전달을 위한 강의형 수업이 아닌 교실에서처럼 학생들과 소통하며 경험의 순간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산초등학교(교장 이종범) 6학년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하여 <6-1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을 재구성하여 <최고의 관찰자 파브르 되어보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을 시작하며

블렌디드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부터 점검해야 했다. 등교가 재개되기 전부터 본교 6학년 교사들은 카카오톡 앱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수업방법은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제시형 수업>, <라이브톡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 <제작 영상 활용수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과학과는 실험 및 관찰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쌍방향 수업과 제작 영상을 활용하여 대부분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이 결정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미 해 오고 있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각각의 장점을 잘 살려 수업을 구성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마침 학생들이 등교수업 후 과학과에 적용될 단원은 <6-1 4.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위해 이 단원을 재구성하여 탄생한 수업이 바로 <최고의 관찰가 파브르 되어보기>이다.

과학수업을 위한 제작 영상들



온-오프라인 연계, 파브르 되어보기 수업 구성

본 수업은 총 15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과학과와 국어과가 융합되었다. 생물영역의 경우,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고 관찰이 주된 활동이라 학생들에게 꾸준한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늘 고민이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식물과 관련한 과학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탐구했던 과정을 밟아보는 인물 중심 수업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때 딱 떠올랐던 사람은 파브르. 대개 파브르 하면 곤충기이지만 파브르의 뛰어난 관찰력은 곤충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파브르 식물기>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수업 활동을 구성하였다.

교과서는 파브르 식물기를 재구성해서 쓴 <파브르에게 배우는 식물 이야기>로 대신했다. 세포, 뿌리, 줄기, 잎, 씨앗 순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모든 탐구의 바탕에는 위의 교재를 함께 살펴보는 활동이 병행되었다. 본격적으로 식물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업의 구분이 필요했다. 원격수업은 학생들과의 쌍방향 수업 및 제작 영상을 활용해 진행하고 등교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표] 최고의 관찰가 파브르 되어보기 수업 구성(15차시)

차시	소주제	수업 내용	등교-원격수업 구분
1	파브르는 누구일까?	파브르에 대해 알아보기	원격수업(콘텐츠 활용)
2		파브르에 대한 내 생각	원격수업(과제학습)
3	파브르 되어보기	식물을 이루는 세포를 알아봐요!	등교수업(제작·표현)
4		나만의 식물 탐구 - CD케이스 식물 심기(실험) - 식물의 자람 관찰하기(관찰)	등교-원격수업(실험·관찰)
5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	원격수업(실험·관찰)
6		줄기의 생김새와 하는 일	등교수업(실험·관찰)
7~8		잎이 하는 일	원격수업(조사·발표)
9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	등교수업(실험·관찰)
10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	등교수업(실험·관찰)
11~12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	등교수업(놀이·관찰)
13~14	나만의 식물기 만들기	나만의 식물기 작성하기	원격수업(제작)
15		랜선 식물기 나누기	원격수업(표현, 발표)

파브르처럼 관찰하고 파브르처럼 식물기도 쓰고

본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파브르라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파브르처럼 식물을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갖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온라인에서든 등교수업에서든 학생들의 경험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수업을 이어갔다. 그중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한다.

등교

세포에 대해 알아볼까요?(3차시)

세포에 대해 알아보고 동물과 식물 세포를 페트리접시와 아이클레이로 만들어 보았다. 이 수업은 등교수업으로 이뤄졌지만, 학생들이 세포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과제도 병행했다. 톡 게시판에 자신이 만든 세포의 모형을 찍어 올리고 세포란 무엇인가를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하기 활동을 병행해서 진행하였다. 공유하기를 등교수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든데 온라인을 활용하니 모든 친구가 작품을 공유할 수 있음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알아보고 피드백하기에도 수월했다.

세포 모형 만들기와 활동 후 온라인 과제



등교 **원격**

식물의 뿌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4~5차시)

식물의 뿌리와 관련한 수업에서는 강낭콩과 옥수수 뿌리 모양 비교, 양파 키우기를 통한 뿌리의 흡수 기능 알아보기 실험을 하였다. 강낭콩과 옥수수 뿌리는 CD케이스에 씨를 심어 뿌리가 나오는 모습과 자란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등교 시에는 학생들이 심는 활동을, 키우는 것은 집에서 키우면서 단톡방에 자람을 공유하며 변화를 관찰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양파 관찰은 쌍방향 수업을 통하여 뿌리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기 2주 전 실험을 세팅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뿌리가 흡수하는 물의 양을 비교·관찰하였다.

뿌리의 기능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에는 교사가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였다. 직접 키웠던 옥수수와 강낭콩의 뿌리털 현미경 사진 및 뿌리의 지지 기능, 흡수 기능과 관련하여 교사의 설명과 구체물을 활용하여 수업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원격이 주를 이루는 수업이라도 과학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놓치지 않는 수업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교사의 제작 영상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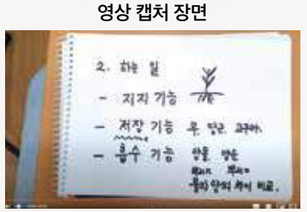
CD케이스 강낭콩과 옥수수 씨앗을 심어 뿌리 모양 비교하기



뿌리 흡수 작용 알아보기 실험을 위한 양파 키우기



뿌리의 기능과 관련한 영상 캡처 장면



원격

잎은 무슨 일을 할까?(7차시)

학생들과 <파브르에게 배우는 식물 이야기> 중 잎이 하는 일에 대해 읽고, 쌍방향 수업을 통해 잎이 하는 일을 학습지에 주제별로 정리해보았다. 책을 읽고 잎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잼보드(온라인 협업도구)를 활용하여 하나의 협동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다.

잼보드를 활용하니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함께 정리함을 통해 짧은 시간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완성된 자료는 다운로드하여 실물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의견들을 정리할 때 서로 보완할 점들은 단톡방을 활용해서 의사소통하고 내용의 재배치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협업과 의사소통, 서로를 위한 배려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원격

나만의 식물기 제작 그리고 랜선 식물기 나눔회(13~15차시)

파브르 되어보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파브르처럼 뿌리, 줄기, 잎 등 식물의 각 구조에 대해 열심히 관찰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과 자신의 학습지에 정리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들은 나만의 식물기를 제작해보았다. 식물기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고 방학과제로 식물기를 제작하였다. 개학 후 학생들은 톡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신의 식물기를 소개하고 친구들의 식물기를 보면서 배울 점과 식물기만의 장점들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였다. 식물기를 쓰는 것을 어려워할 줄 알았지만, 학생들은 자신만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든다 생각하며 열심히 참여하였다. 식물 나눔회는 친구들마다 주제가 다르다 보니 자신의 식물기에 다 담지 못했던 아쉬움을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채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친구들의 식물기 내용에 답글을 달면서 서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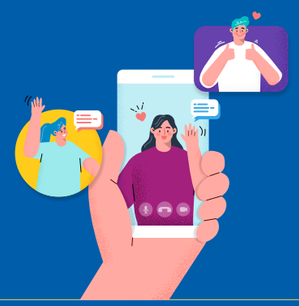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용기 있는 한 걸음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어색하다. 하지만 용기 있게 걸어가다 보면 숲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진다. <최고의 관찰가 파브르 되어 보기!> 수업은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가보지 않았던 길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첫걸음을 떼고 걸어가 보니 이제는 블렌디드 수업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누릴 새로운 풍경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것 같다. 익숙하기만 했던 등교수업에서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과학과 생명 영역에서 식물을 키워서 관찰을 꾸준히 시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집에서 키우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다 보니 관찰과 수업 진도를 맞추는 것에 좀 더 수월했으며, 날짜별로 업로드 되다 보니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등교수업에 발표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부담을 덜 느껴서 좀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등교수업 속에서 직접적 경험과 의사소통 그리고 원격수업에서 기록과 저장의 수월성과 표현에 대한 적은 부담감이 장점으로 적용되니 수업이 좀 더 풍성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의미한 교육 활동을 조금 더 고민하고 실천해간다면 이런 위기는 우리 교육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비대면 시대, 소통에서 답을 찾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이루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소통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대면 시대에 학교 구성원 간의 공감과 소통으로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례, 학생 간·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노하우를 소개한다.

28 10년 차 혁신학교의 소통 비결은 '자발성'
32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깨워라
35 비대면 소통 시대, 관계기술의 열쇠로 풀다
38 교사-부모가 뭉치면 아이들이 보인다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운영_ 경기 사동초등학교

10년 차 혁신학교의 소통 비결은 '자발성'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상황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단절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상황과 관계 없이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학교가 있다. 경기도 동두천 사동초등학교(교장 백연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동초를 방문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글_양지선 기자

올해 3월 사동초등학교에 부임한 백연화 교장은 학교에 오고 놀라웠던 점이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소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의미예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선생님들에 대한 칭찬만 이어지더라고요.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가 탄탄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느꼈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 활동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깨달았어요."

지난 2012년 혁신학교에 지정된 사동초는 매년 학교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다. 사동초 교장은 이러한 결과가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교육 활동에 잘 반영되고, 관리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분이다.

교직원·학생회·학부모 자치회 활성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이전부터 사동초에서는 이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자치회가 활성화돼있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열리는 교직원 자치회에서는 다뤄야 할 안건을 사전에 받아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덕분에 여러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어 오해의 소지는 사라지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학생 자치회에서는 학생 스스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기획하고 실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요청하는 부분만 조력할 뿐, 학생들의 손에 최대한 맡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친구들에게 흥밋거리를 주고 싶다며 운동장 보물찾기를 기획했다. 김병국 혁신부장교사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다 보니 어설프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모습이 예뻐 보인다."라며 "교사의 간섭이 커지면 학생들의 자치 능력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자치회 역시 지난 2019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자치회에서는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후 성찰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열리는 모임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캠프 운영 등 아이들을 중심에 둔 활동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과정을 학부모가 직접 추진한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치 역량은 높아지고, 서로 의견을 내며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비대면 상황에서 이뤄진 소통의 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체육 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김병국 교사는 줌(Zoom)을 이용해 아이들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은 다른 과목에 비해 원격수업으로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김 교사는 리듬에 맞춰 춤추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특정 물건 제일 먼저 찾아오기), 제시한 동작 반대로 따라 하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 콘텐츠를 구성했다. 그는 처음에 부끄러워하던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특히나 부끄러움을 깨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죠. 아이들은 사소한 거로도 금방 기분이 상해서 화상 카메라를 꺼버리는데, 그럴수록 더 칭찬해주곤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반찬은 뭘 먹었는지, 이런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수업에도 집중하게 했죠. 오히려 대면 수업에서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1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열리는 학부모 자치회 모임에서는 활동 계획 세우기와 역할 분담 등 모든 과정을 학부모가 직접 추진한다.

2 지난해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 현장. 학생 자치회 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요청하는 부분만 조력할 뿐, 학생들의 손에 최대한 맡긴다.

3 사동초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소통 방식을 이어나가고 있다.









줌을 통해 수업뿐 아니라 상담 활동도 이뤄졌다. 수업에서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씩 보충 지도가 이어졌다. 원격수업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바로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다. 수업을 마친 오후에는 1~3학년 담임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등교하도록 해서 1대 1로 지도했다.

박혜경 교무부장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은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년에 1학년 아이들 모두 한글을 깨우쳐 진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공부가 부족한 아이들은 교사가 학교로 불러 철저히 책임지고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한글 미해득 학생 없이 전부 2학년에 올라갔어요.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함께 노력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죠."

지난해 대면 상황이 적다 보니 학생들 간의 갈등은 이전보다 덜했지만,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조정하고 대화하며 해결하도록 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특히 반별 단체 채팅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해 행동을 바로잡고 사과하도록 교육했다.

원격수업이 오히려 학생들 간의 배려를 이끌고, 서로 기다리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준 측면도 있었다. 김병국 교사는 "학교에서는 친한 친구들과만 어울리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명이 이야기하면 모두 함께 듣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된다. 덕분에 오히려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에서 돋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다. 원격수업을 통해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생활을 더 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모임으로 더욱 활발해진 교사 간 소통

비대면 상황은 교직원 간의 소통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만들어줬다. 사동초에는 학년별, 교과별로 8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며,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래 모임은 주 1회였지만, 온라인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자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에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등 수업을 구상하며 고민했던 부분을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누며 논의했다. 학교 차원에서는 원격수업과 관련해 필요한 연수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하며 교사들의 배움을 지원했다.

박혜경 교사는 지난해 '온책읽기'를 주제로 3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전학공을 운영했다. '온책읽기'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책 속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는 활동이다. 사서교사를 포함해 교사들이 함께 여러 권의 책을 추천하면, 패들렛(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의 투표로 원하는 책을 선정하게 했다. 책 내용과 관련한 부가 활동은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 상황에 따라 가능한 활동을 적절하게 나누고, 모둠별로 책 내용을 재구성해 새로운 책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구상했다. 박 교사는 "학기 말에는 3학년 전체 92명이 작가가 됐다.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며 손수 책을 만들어 뿌듯해했다. 함께 수업을 구상한 교사들에게도 의미있는 활동으로 남았다."라고 전했다. 올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독서교육, 원격수업 연구, 기초학력 교재개발 연구, SW교육 등 주제가 한층 다양해졌다. 코로나19 이후 현시점에 가장 필요한 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것이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교육공동체

사동초가 있는 동두천시는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에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적지 않다. 교사들도 이를 고려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연화 교장은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파악하고, 510명에 달하는 전교생의 이름을 외울 정도이다. 학교가 노력하는 만큼 학부모도 아이들을 믿고 맡기며, 신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사동초는 올해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소통 방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자율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해 교내에서 자체 연수도 이뤄지고 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도 소인수 학생들로 구성해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백 교장은 "신규 교사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고, 기존의 경력 교사들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잘 조합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학생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교사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다꽃을 피우며 서로서로 어울려 왁자지껄 신나게 놀아요' 교문에 걸려있는 현수막 문구가 소통하는 사동초의 따뜻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4 줌을 통해 수업뿐 아니라 상담 활동도 이뤄진다. 학교는 수업에서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씩 보충 지도를 했다.

5 지난해 3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 박혜경 교사는 지난해 3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온책읽기'를 주제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했다.

6 교사들은 원격수업에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등 수업을 구상하며 고민했던 부분을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누며 논의했다.

학생들과 소통 어디까지 해봤니?_ 교과수업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깨워라

글_박석완 부산수영중학교 교사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며 원격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카메라를 잘 켜지 않아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교사의 말에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지 않아 교사 혼자서 외롭게 소통의 과정 없이 수업을 해야만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또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소통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중요해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수업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한다.

원활한 비대면 수업을 위한 노하우

소통(疏通)의 사전적 정의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다.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난다면 교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해당 수업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수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동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지닐 수 있도록 교사가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 적극성, 및 흥미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좋은 학습 태도, 그리고 나아가 교사와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소소한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과 원격수업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사전에 정해 두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서로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하는 것을 약속으로 정해 두면 좋다. 사춘기를 한창 겪고 있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에 반 전체 학생들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카메라 켜기 게임 등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앞서 수업한 3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는데 12초 걸렸는데 5반은 몇 초 걸리나 볼까요? 시작!' 등과 같은 말을 하거나 서로 순차적으로 카메라를 켜는 눈치 게임 등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며 카메라를 켜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는 것에 민감한 학생이 있다면 교과서나 책상 등을 비추도록 허용해도 좋다. 카메라를 켜는 규칙 외에도 잘 묻고 잘 답하기, 과제 열심히 하기 등 몇 가지 약속을 정해 두고 학생들이 이를 잘 지킬 시 교사도 학생들을 위해 수업과 관련되는 재미있는 게임을 해 주는 등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면 좋다.



둘째, 원격수업에서도 대면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학생들의 동기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수업 화면이 공유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같이 보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교사가 보는 하나의 모니터에는 수업 자료가 나타나도록 하고 또 다른 모니터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하면 학생들의 표정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교사의 물음에 어떤 학생이 대답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름을 더 잘 불러주며 칭찬을 아낌없이 해 줄 수 있다. 또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 채팅창을 실시간으로 보기에도 편리하므로 학생들이 채팅창에 어떤 의견을 썼을 때 이름을 불러주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 하나에 교사가 이름을 불러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며 이런 식으로 교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게 되면 채팅창은 더욱더 활기를 띄게 된다.

셋째,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을 던질 때 학생들이 답을 하며 참여한 정도를 엑셀의 표 형태로 누적 기록해 두면 효과적이다.

모둠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모둠 점수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점수로 기록을 해 둘 수 있는데 이렇게 점수가 기록된 표를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자주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을 때 무조건 1점의 점수를 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뽑기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뽑기의 기회를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을 때 룰렛을 돌리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데 룰렛의 결과에는 단순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모둠과 점수를 바꾼다거나 다른 모둠으로부터 점수를 일부 뺏어온다거나 하는 등의 게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큰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원격으로 매 시간 참여한 정도를 기록하여 오프라인 수업 시 학생들에게 선물을 뽑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면 학생들의 동기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학생들이 뽑을 수 있는 선물의 종류에는 간식 등과 같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선생님과의 사진 촬영권이나 수업 시간 원하는 음악 듣기권 등의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동기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넷째, 원격수업의 상황을 살려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로써 표현하면 원격수업의 특성상 동시에 여러 명이 말하는 경우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스피드 정답 쓰기 같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교사가 발문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정답을 채팅창에 쓰도록 한 다음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급한 마음에 빨리 답을 입력하려다 재미있는 오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또 한 번 웃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교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해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넌센스 퀴즈나 재미있는 상식 퀴즈 또는 학교와 관련된 문제 등을 활용해도 좋다. 아울러 채팅창을 잘 활용하면 평소 부끄러워서 자기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의 참여도 더욱더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다섯째, 원격수업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수업에 더 큰 재미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퀴즈용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기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살펴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드 형태의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에듀테크를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 각자가 각각의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고서 형태로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나아가 LMS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제공해 준 다음 각자가 제출한 과제의 중간 결과물을 살펴보고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서 학생들 각자의 결과물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도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에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지친 상황이지만 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소통에 기반을 둔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동기를 지니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오프라인 수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기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에 방해가 되는 마스크를 속 시원하게 벗어 던지고 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과 소통 어디까지 해봤니?_ 학급운영

비대면 소통 시대, 관계기술의 열쇠로 풀다

글_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비대면 원격수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습격차 문제, 스마트 기기 과의존 현상, 게임 중독 현상, 사이버 언어폭력 증가, 우울증 환자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주의 문화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관계기술(사회적 기술, Social Skill)이다.

관계기술(Social Skill)이란?

비대면 소통 시대에서 불통의 문화,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문제점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사회성 증진을 위한 관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관계기술이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대인 관계기술을 말한다. 즉,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대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술'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언어와 행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관계기

교사가 의도적으로 고민하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교실에서 실천해야만 아이들이 삶 속에서 관계기술을 배울 수 있다.

술로는 칭찬하기, 경청하기, 배려하기, 공감하기, 격려하기, 갈등 해결하기, 인사하기,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등이 있다.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술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단순히 친구에게 호감이 있어서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좋은 친구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의 장점에 대하여 칭찬하고, 힘들 때 격려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가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 경청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소통을 잘하려면 소위 '메라비언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언(Mehrabian)이 의사전달 방식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말의 내용과 메시지는 7%에 불과했다. 반면 말의 소리 크기, 억양, 뉘앙스 등 청각적 요소가 38%, 제스처, 표정, 행동 등 신체적 요소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했지만, 경멸하는 표정으로 비웃듯이 가볍게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사과를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언어적 의미가 비언어적 요인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관계기술은 학급 집단생활을 통해서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고민하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교실에서 실천해야만 아이들이 삶 속에서 관계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제는 교실에서 체계적인 관계기술 교육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만 한다.

관계기술센터 도전하기

관계기술센터는 관계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관계기술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두 번 정도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설명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관계기술은 동기 부여, 학습 목표 제시, 시범 보이기, 반복과 연습, 피드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존슨이 제시한 'T-차트(chart)'를 활용한 관계기술센터를 운영해보면 좋다. 원래 'T-차트'란 T자 모양의 도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관계기술에 대한 말과 행동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다. 관계기술센터는 잘 보이는 공간에 일종의 학급 게시판 형태로 상시 게시하면 좋다.

먼저 학기 초 관계기술에 대한 연간 계획표를 세워서 운영하면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학급 활동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연간 계획을 논의하고 만들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종례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하루에 한 번씩 실제로 실습할 수 있으면 좋다. 예컨대, 관계기술센터에서 제시한 말을 다 함께 읽어보거나 외우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관계기술 행동을 짝꿍과 함께 실습해보는 것도 좋다. 만약 칭찬하기라면 짝꿍을 향해 '역시 대단해!'라고 칭찬하면서 엄지 척 행동을 해보는 것이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으면 좋다.

실제 활동으로 이어가기

관계기술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격려하기라면 격려하기의 의미와 중요성, 격려의 방법뿐 아니라 다양한 격려하기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다. 욕구별 격려 방법에 따라 격려 메시지 쓰기 활동, 돌아가며 격려하기 활동, 사회적 기여자들(소방관, 군인 등)을 찾아 격려 편지 쓰기 활동 등을 해보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조종례 시간 등의 학급 재량 활동 시간, 자유학년제의 주제 선택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으면 좋다.

해당 관계기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표를 개발하고, 제일 열심히 실천한 친구를 찾아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하는 것도 좋다. 칭찬 주인공 코너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학생 이름과 사진을 넣고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발달 특성에 따라 '◯◯왕', '◯◯천사' 등의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칭찬 주인공 코너 게시 내용을 명예의 전당 코너로 옮겨서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학생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지속해서 미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모범 학생상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 니체



학부모와 소통 어디까지 해봤니?

교사-부모가 뭉치면 아이들이 보인다

글_송주현 강원 소양초등학교 교사

> 66
> 담임에게 한 번 전화할 일은 두 번 하시고, 시시콜콜 메시지도 주고받는 거지요.
> 99

많은 학부모님께서 아이의 걱정스러운 행동에 대해 담임에게 알리는 걸 꺼립니다. 올해 우리 반의 경우도 아이에 대해 알려오신 부모님은 스물다섯 명의 아이 중 서너 명 정도? 대부분은 제가 알게 될 때까지, 일단은 말 안 하고 기다리시더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일단, 내 아이가 좀 부족하면 그게 부모인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자식에 대한 동일시). 저부터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못 뗐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저는 교사니까 한글은 초등학교 가서 배우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게으른 부모라고 담임이 흉보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 중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아이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그 반대로 태어나요. 이건 부모가 미리 알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아이로 태어난 아이를 우린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키우는 거지요. 내 아이가 완벽하게 태어난 것이 내가 잘 나서 그런 게 아니듯 그 반대의 아이라 해도 부모님이 못나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이 잘못도, 낳은 부모 잘못도 아닌데 우린 자꾸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의 문제점을 학교에 알리는 걸 꺼립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으면 교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알아야 더 잘 가르칠 텐데 말이지요.

학부모님께서 알리시든 안 알리시든 담임은 어차피 아이에 대해 알게 됩니다. 초등학생은 자기 기질(성격)을 감추지 못하니까요(그래서 아이지요). 하지만 교사는 아이의 행동들을 쉽게 알아차리도록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일찍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잘났던 녀석이나 못났던 녀석이 나중에 사회에서 부대껴 먹고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저 녀석, 저러다 나중에 밥이나 먹고 살지 모르겠다, 생각했던 아이가 번듯하게 가정 이루고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유는 하나, 학부모와 교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학부모-교사가 한편이어야 하는 이유!

아이의 학교생활 1년 중 교육 효과가 가장 큰 시기가 3월 첫 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만난 새 담임이 어떤 사람일지 몰라 아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겠지요? 며칠 지나서 흐지부지되더라도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3월 2일에 아이들을 아주 눈여겨 관찰합니다. 아이 중엔 너무 여려서 건드리면 깨질 것같이 소심한 아이도 있고 정반대로 장난꾸러기도 있어요. 겁 많은 아이도 있고 반대로 모험심이 넘치는 아이도 있지요. 주어진 과제를 착실하게 하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산만한 아이도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 겁이 많으며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는 제가 하나도 안 무서우며 심지어는 가끔 웃기기도 할 줄 아는 담임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씁니다. 또한,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도 확실하게 막아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요. 반대로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는 조금 엄한 느낌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긴장하고 행동을 조심할 테니까요.

이렇게 담임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각각의 아이에게 드러냅니다. 학기 초에 아이에 대해 더 일찍, 더 자세히 파악하면 이런 과정이 더 수월하겠지요? 보통 아이를 파악하려면 몇 달, 짧아도 한 달은 걸립니다. 그동안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교사와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힘듭니다. 교사가 아이를 잘 모르고 아이가 싫어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미리 그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알면 훨씬 좋겠지요? 압니다. 학부모님께서 처음부터 교사를 신뢰하셨다면, 그래서 학부모-교사가 한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고민은 필요 없다는 것을요. 그동안 우리 교육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울러 신뢰도 높아졌고요. 한 번 믿고 맡겨 보세요!



코로나19로 막힌 비대면 상담, 잘 되시던가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대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교훈은 딱 한 가지. 사람은 역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로 하려니 시간이 배가 걸려요. 그렇게 해도 학부모님께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풀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교사라서 그나마 나은지도 몰라요. 낯선 목소리의 제 전화를 받은 학부모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통화 내내 서로 어색한 말을 주고받느라 정작 아이에 대한 깊은 대화는 겉돌고 횡설수설. 힘들었습니다. 일이 바쁘신 학부모님의 경우는 전화 시간이 안 맞아 채팅으로 상담을 했는데 아이고, 이건 전화보다 더 어렵더군요. 학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아이 자리에도 앉아 보시고 교실에 게시된 공부 결과물도 보시면서 대화하면 상담이 참 쉬울 텐데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엔 그랬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학부모님과 교사가 불편할 각오를 해야겠어요. 담임에게 한 번 전화할 일은 두 번 하시고, 시시콜콜 메시지도 주고받는 거지요(비대면을 이유로 서로 연락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오가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 가르치기가 훨씬 낫거든요). 저도 올해는 단체대화방과 학부모 SNS를 만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노는 사진도 올리고 노래하는 영상도 올리는 거지요. 비록 얼굴은 못 보는 비대면 상황이지만 대면 상황에 최대한 접근하려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진에서 확인하세요.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 성장 이끈다

글 _ 어효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서기관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유례없는 도전으로 고등교육 생태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립대학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에서, 지역의 대학들과 협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중심으로서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확대

2018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쟁방식의 일부 대학 선정'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표1 참조) '전체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38개 국립대학은 ①지역사회 기여, ②기초학문 지원(거점대), ③대학 협력 네트워크, ④고등교육 기회 확대, ⑤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각 대학은 대학과 소재

[표1]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기 존(2017)	확대 개편(2018~)
목적	대학 발전모델 구축 및 인사·조직·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210억 원	800억('18) → 1,500억('21)
지원대상	일부 국립대(18개교)	전체 국립대(38개교)
지원방식	경쟁방식 선정평가형	정부-대학 간 상호협약형
성과지표	개별 대학이 선정·관리	39개 대학 공통 성과지표 관리 개별 대학 특성에 적합한 자율지표 선정·관리
사업기간	2년('17~'18년)	5년('18~'22년)

지역의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별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210억 원에서 2018년 800억 원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이다.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통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교육·연구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 ('17) 1,158만 6천 원 → ('19) 1,254만 8천 원(8.3% 상승)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도서·기계기구구입비 : ('17) 35만 6천 원 → ('19) 40만 4천 원(13.5% 상승)
*** 기회균형 및 지역인재 모집 비율 상승 : ('17) 13.95%→ ('20) 15.12%

공유·협력 모형을 통한 국립대 공동 성장 모색

아울러, 국립대학은 유형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공유·협력 모형을 통해 공동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 9개교가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공동교육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거점 국립대는 학생들이 지역 이동 없이 타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2020년에 구축하였으며, 2021년 1학기 현재 약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2]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부' 신설

<1단계> 융합체계 구축

- 장기발전계획 KNU2030, 중단기발전계획('21~'24)을 기반으로 융합체계 구축 추진
- 학·석사 연계과정을 위한 신설 대학원 융합학과(8개), 학부 융합전공(2개)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학원	전공	비고
연구	ITA	인공지능	●		'19.5
		의생명융합	●		
		로봇 및 스마트 시스템	●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		
	AIR	데이터융합컴퓨팅	●		'20.9
		농생명융합	●		'19.5
	PBC	인문카운슬링	●		'19.5
		환동해안융복합	●		'20.9
교육	융합교육 선도분야	북한농업개발		●	'20.3
		북방문화와 통상		●	'20.3

<2단계> 융합학부 추진

- 교원, 교육과정, 공간 등이 확보된 4개 분야(ITA) 추진
- (학생선발) 2학년 수료 이상
- (운영방법) 학·석사 연계과정
- (교원운영) 전임교원 배정(기존 겸무)
- 융합교육지원센터→학부 행정실 개편

<3단계> 융합학부 시행

- '20.11 학칙 개정 공포
- '20.11 ~ '21.2 신설 학부(전공) 홍보
- '21.1 ~ '21.2 학생 모집 및 선발
- '21.3 학부 운영

융합 연구 중점 육성 분야

ITA(Industrial Technology Advances)
- 산업기술고도화 또는 기술사업화 중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서 학문 간 관련 범위가 넓고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3개 이상의 단과대학 간 융합연구 분야(단일 단과대학 내 연구 분야도 가능)

AIR(Applied Innovation & Realization)
- 의학·공학·농학·약학 등 응용혁신 실현 분야로 단과대학 내 융합연구 분야

PBC(Pure Basic Creative)
- 인문· 사회· 자연 등 순수기초창의 또는 문화창달 분야로 단과대학 내 융합연구 분야

또한,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는 지역의 8개 국립대학이 함께 지역인재를 키우고 대학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기반을 대학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신입생을 선발하여 운영하던 기존 학사제도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인 학사제도 개편 사례도 있다.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부(경북대)의 경우(표2 참조),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스스로 유연한 학사조직을 신설한 사례다.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과 또는 복수전공만으로 선발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생 정원 증가 없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례로서,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이러한 우수 사례와 성과가 축적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과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학과 지역 간 공유·협력, 국립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점 추진과제

하나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와 협력하여 지역·교육여건 개선 모델을 마련하고 고등교육 자원 공유사업(고교학점제 등)을 확대한다.

둘 기초학문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셋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권역별 공동 교육혁신센터 설치 확대 등 대학 간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조성한다. 또한, 국외 대학과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복수학위제 운영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넷 기존의 백화점식 세부사업을 지양하고 대학의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특화 전략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국립대학으로서 대학 운영체제의 공정성,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운영체제 개선 노력을 포함한다.

다섯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한 후학습자 직업교육 등 전담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더욱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교육청_ 초록학교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지구 살려요"

충청북도교육청의 초록학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생태순환형 학교다. 학교 환경 조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연과 환경을 중심에 두는 것이 특징적이다. 초록학교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올해 도내 103개교가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초록학교와 같은 환경교육 정책을 통해 미래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다.

글_양지선 기자


달천초

복대초

남천초

단양중

초록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생태소양교육을 반영해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학교숲을 조성해 교내에 친환경적 시설공간을 마련한다.

66

초록학교는
학교 교육이 학교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지구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했다.

99





학교숲의 재료로 만든 거미
(종곡초 김태환 학생 작품)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환경보호는 이제 단순히 캠페인이 아닌 일상이자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재료나 제품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늘었다. 이와 함께 미래 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인식을 변화하고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초록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정책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생태소양교육을 반영해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학교숲을 조성해 교내에 친환경적 시설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초록학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지난 2017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2018년 30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9년 40개교, 2020년 45개교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학교숲 조성 사업이 초록학교 안에 통합됐다. 그 결과 교육과정 중심 초록학교 55개교, 학교숲 중심 초록학교 48개교로 총 103개교가 운영 중이다. 초록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남윤희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연구사는 "공모학교보다 실제 응모하는 학교가 더 많아 최대한 많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초록학교에 선정되면 학교별 프로그램, 공동 실천 프로그램, 전문적 학습공동체, 환경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된다. 초록학교만들기 민간위탁사업과 연계해 교원연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학교 컨설팅, 체험교구 제작 지원, 찾아가는 수업 지원 등도 추가로 이뤄진다. 초록학교만들기 민간위탁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2021년 현재 207명의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위원이 참여한다. 교육청·지자체·대학·시민단체·전문가·학교 등 초록학교에 관심 있는 다양한 구성원이 초록학교만들기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학교숲 만들고 지역과 연계하는 환경교육 활동

초록학교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남천초등학교(교장 김남호)는 학교숲을 자연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묘목 심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숲과 나무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학교숲을 가꾸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해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집 근처 골목의 생태환경을 찍어보는 '온라인 동네숲 사진전'을 개최하고,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수업 시간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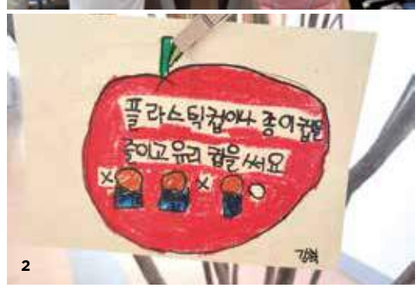
초록학교는 단순히 학교 운영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내 환경교육 활동이 지역 사회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양중학교(교장 김명수)는 교내 환경동아리 '세단'을 통해 천연비누와 대나무 칫솔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지역 카페 점주들과 연계해 친환경 옥수수 빨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도 더욱 풍성해졌다. 복대초등학교(교장 박미희)는 '꿈길로'라는 이름의 학교숲 둘레길을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만들어갔다. 학교 운동장 자투리 공간에서 시작된 학교숲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가꾸며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됐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초록학교의 철학이다.

현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남윤희 연구사는 "초록학교 운영교에서는 학교 교육이 학교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지구적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초록교육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전한다."라며 "필수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받는다."라고 전했다.

1 교구를 활용해 친환경마을 꾸미기 활동을 하는 달천초
2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줄이고 유리컵을 써요" (도안초 강혁 학생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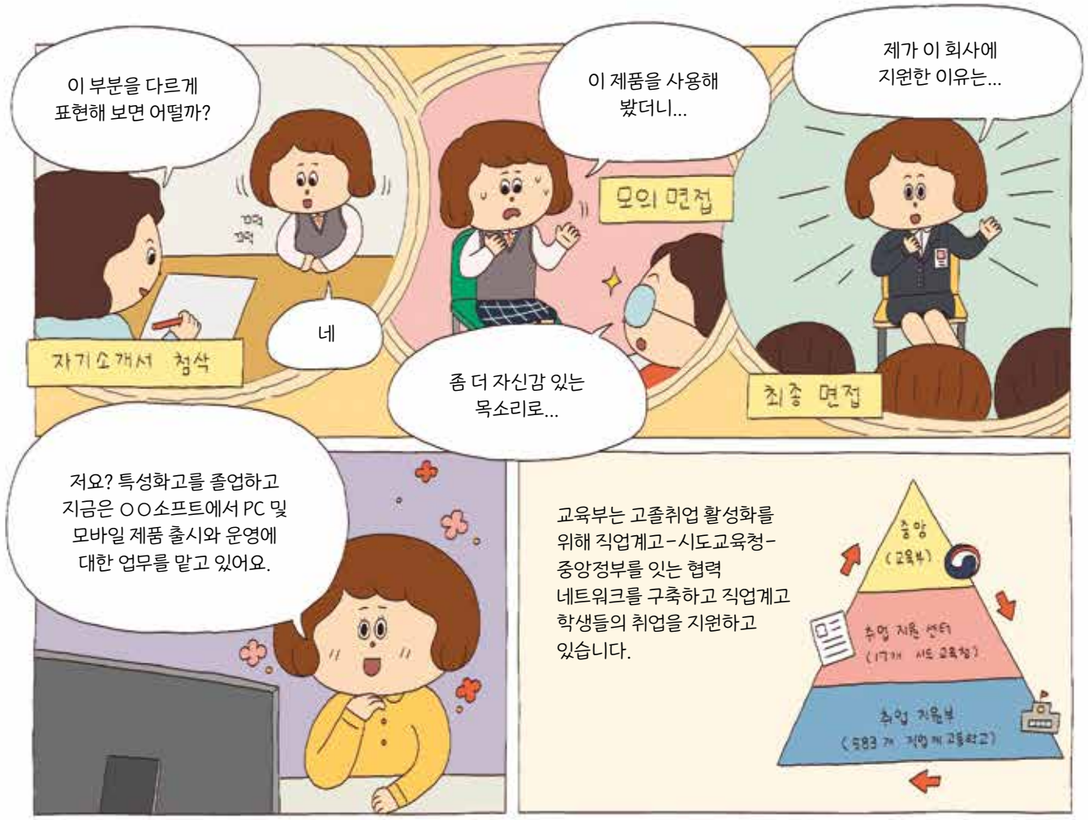
초록학교별 자율성 살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초록학교는 자율적 참여와 운영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마다 특색이 다르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개였던 초록학교추진협의회를 올해 10개로 확대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초록학교의 자율성이 빛나고 지역사회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는 탈석탄금고(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에 돈을 맡기겠다는 것)를 선언했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수업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연수 확대, 기후 위기 대응 자료 제작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 지역과 협력하여 생태시민을 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 학생 체험활동과 교직원 연수, 지역 협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지난해 6월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하나, 범정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경제단체, 기업 등과 MOU를 체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20.12. 신규 일자리 발굴 6,219건).

둘, 현장 친화적 지원사업(현장실습 지원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을 운영하고 교사, 취업지원관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체를 직접 연결, 고졸취업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AI 화상면접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웹툰은 실제 특성화고 취업사례를 참고하였음

EDUCATION NEWS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인재 7만 명 양성

- 교육부, 빅3+AI 인재 양성 방안 발표
- '한국형 캐글' 구축해 실전형 인재 양성



정부가 2025년까지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이하 빅3+AI) 등 혁신성장산업에 특화된 인재 7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빅3+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기관에서도 대학 과목과 대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과 연구자가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 시스템을 구축해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캐글이란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기업 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공동연구·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강소기업과 우수 인재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기반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보상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 기간은 장기화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해 대학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복잡한 사업규정은 단순화한다. 빅3+AI 분야는 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사업 통합관리 추진절차를 구축해 효율을 높이고, 양성된 인재에 대한 취업 현황 등을 추적 관리하는 점검 체계를 만들어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빅3+AI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은 직무별·인재 수준별로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차 분야의 재직자 전환 교육, 시스템반도체 설계 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산업 융합, 인공지능 고급·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EDUCATION NEWS

6개 부처 손잡고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 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 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가칭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체험관·과학관 등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의 기후 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 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 할 예정이다.

[표]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지원내용(안)

구분	시범학교	중점학교
운영개념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 17차시 구성(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발 예정)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인성학교 연계 • 교실 숲,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 • 해양환경 이동 교실 제공 • 학교 숲, 목재 활용 교실 개선 • 기후변화 체험콘텐츠 제공 등
지원내용	• 교당 1,000만 원	• 교당 1억 5,000만 원 •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
선정방법	•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선정·지원	• 관계부처 합동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전체 학교 대상
선정 학교 수	• 총 102개교 ※ 17개 시도교육청×초·중·고 (2개교씩 6개교)	• 총 5개교

한복교복 도입할 중·고등학교,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1 한복교복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한복교복은 세탁이 쉽고 땀 흡수와 통풍이 뛰어난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되며,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와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와 신청서를 5월 3~28일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교복비 미지원' 학교의 경우 디자인 상담뿐만 아니라 3년간 한복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

※ 문의 : 한복진흥센터(www.hanbokcenter.kr) 02-398-1632



정보 보호 전문가
지한별 연구원

보안 지키는 선의의 해커, 수많은 유혹 이겨내야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기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정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한별 연구원은 정보 보호 전문가로서 보안 기술을 연구하며,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에서 멘토로도 활약하고 있다. 지 씨와 만나 정보 보호 전문가로서의 삶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_양지선 기자

해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캐내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려 혼란을 일으키는 '블랙 해커'를 떠올린다. 이런 블랙 해커에 맞서는 '화이트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미리 발견해 해커의 침입을 막고, 시스템 손상 시 이를 복구하는 정보 보호 전문가다. 최근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해킹 기법이 발달하면서 화이트 해커의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비대면 환경은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가속했다.

지한별 연구원은 5년 차 화이트 해커로, 우연히 입부한 대학 동아리가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 201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산업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과내 정보보안동아리 융합보안연구회(CSS)에 들어가면서 보안 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컴퓨터공학과도 복수전공을 했다. 이후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BoB)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 보호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2017년에는 BoB에서 최종 10인에 선정되며 보안 인재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남초 보안 업계에서 꿋꿋이 발을 딛고 있는 여성이기도 하다. 이전 회사에서 팀원 17명 중 홀로 여성이었던 그는 "해커라고 하면 아직 어둡고, 무섭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라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려운 일이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멘티였던 BoB에서 이제 멘토로서 활동하며 후임 양성에도 애쓰고 있는 그는 "보안에서도 기술, 관리, 법,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가면서 멘티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했다.

다음은 지한별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하나,
화이트 해커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기업과 사전에 계약 후 제품의 취약점을 찾아내 시스템 작동상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는 일을 한다. 블랙 해커처럼 모의 해킹을 시연해보지만, 해당 제품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취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보안 가이드라인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스마트TV, AI 스피커, IP카메라, 스마트 도어락 등 IoT 제품의 보안성을 연구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편리한 기기들이 사실은 해킹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곤 한다."





1 지한별 연구원은 BoB를 통해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이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2 지 연구원은 "화이트 해커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신기술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둘, 일하면서 느꼈던 성과나 보람은 무엇이었나?

금융기업의 보안성을 진단하다 보면 시스템상에서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은행 계좌 안의 돈을 무한대로 불려놓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뿌듯하다. 다만 일반 사용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 주로 새벽 1시~6시 사이에 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밤을 새우며 일해야 하니 그 부분이 가장 고생스러웠다(웃음)."

셋, 화이트 해커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첫째는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이다. 일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어린 학생들은 단기간에 실력이 급성장하는데, 실력을 과시하려다가 불법인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보안 업계는 윤리의식이 엄격해서 한번 실수하면 끝이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호기심, 분석하려는 자세, 창의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안 분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어려운데 신기술은 계속 나온다. 열정이 없으면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제가 다른 화이트 해커와 차별화되는 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분석한 결과를 쉬운 말로 풀어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넷, 화이트 해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화이트 해커는 실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다. 나이가 어린데도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IT 분야보다 낮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대우가 많이 좋아졌다. 금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보안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화이트 해커팀을 뽑고 있다. 실력을 증명한다면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버그 바운티(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해킹해 취약점을 찾은 해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프리랜서로도 활약할 수 있다."

다섯, 화이트 해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로봇,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보안이 무조건 뒷받침돼야 한다. 각 기업에서도 보안 전문가의 영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대학에 정보보안학과가 많지 않았는데, 보안 관련 신생 학과가 많이 늘어났다. 보안 관련 인재를 양성하려는 정부 지원 정책도 많다. 보안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발전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공 아니면 실패로 끝이 나는데, 사실 과정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대학에서는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때 일단 이것저것 경험해 보자는 마음이 컸다. 학창 시절 영어에 자신이 없었지만 일부러 영어 말하기 대회에도 나가보고, 과학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청소년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나갔다. 화이트 해커로 진로를 정하게 된 것도 우연히 학내 정보보안동아리에 참여한 것이 계기였다. 조금이라도 흥미 있는 게 생기면 일단 해보자. 중요한 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라는 것이다."

TIP BOX

정보 보호 전문가

TIP. 1 _____ 하는 일

정보 보호 전문가는 모의 해킹 및 취약점 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의 가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해커의 침입을 빠르게 찾아내어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 손상이나 정보 유출 시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을 한다. 발생한 악성 코드 파일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보안 프로그램 및 보안 관련 장비를 개발하기도 한다.

TIP. 2 _____ 준비 과정

정보 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컴퓨터 시스템·하드웨어·운영체제·정보 보안 등 IT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정보 통신공학, 정보 보안(보호)학 등을 전공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보안인재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정보 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없지만, 정보처리기사나 정보보안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TIP. 3 _____ 적성 및 흥미

최신 해킹 기법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보호 정책을 세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I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최신 IT 기술이나 장비에 호기심이 많고 깊게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상사나 임원진을 설득하여 정보 보호 정책을 실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토론 및 논쟁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여驪 주州 시간의 주름을 펴다

남한강을 품고 있는 기름진 땅 초입, 녹음 사이로 햇살이 수줍게 고개를 내민다. 계절은 여름을 향해가고 있다. 푸르름 속에 영글어가는 시간이 먼먼 옛날을 눈앞에 내려놓는다. 소나무가 뿌리 내리기 훨씬 전부터, 그 아래 붉은 흙이 저 너머 사연을 머금고 이곳에 자리 잡기 전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를 찾아 여주로 들어간다.

글 _ 강지영 객원기자

숲길을 걷는다. 그 시절 왕의 숨결을 따라 걸을 뿐, 이 노정 끝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세종과 소헌왕후의 합장릉과 효종과 인선왕후의 쌍릉을 찾아가는 길이다. 귀를 관통하는 새소리가 바닥을 쓴다. 사그락사그락, 빗질이 되어 겹쳐지는 새소리를 밟아 나간다. 그 위에서 익숙한 문형을 본다. 기역처럼 보이는 무엇이, 히읗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발을 이끈다. 세종의 흔적을 따라 영릉을 찾아간다. 글자를 벗 삼아 걷다 보면 길이 나올 터. 닿음이 있을 터. 굽은 소나무길 사이를 걸으며 허약하고 예민했던 세종을 떠올린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세종대왕 영릉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

글이 숨구멍이었던 세종은 책을 통해 만사(萬事)를 관조하며 세사를 읽어내는 눈을 조각했다. 책을 읽는 행위는 갑갑한 궁궐 생활에서 세종에게는 삶 그 자체였고 품을 넓혀주는 무한한 우주였으며 그 자신이기도 했다. 세종은 애서광이었다. 숨을 쉬기 위해 낸 구멍이 숨통을 막아오는 지경이 이르자 태종은 이윽고 세종의 처소에서 책을 치우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세종대왕이 숨겨둔 책이 후에 천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전해지는 구양수와 소동파의 서신 모음집 「구소수간(歐蘇手簡)」이었다. 구양수와 소동파의 교류에서 세종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이 남긴 문자 속에서 어떤 세상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 즈음 세종대왕상을 만난다. 책을 들고 선 세종에게서 문자와 말이 달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어낸 따뜻한 눈을 본다. 세종대왕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있는 혼상, 혼천의, 측우기 등에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인 애민을 느낀다.

왕릉 관리인들이 지내던 곳을 복원한 재실을 지난다. 영지를 거쳐 홍살문에 이른다. 문 너머에 능이 있다. 세종의 능이 눈앞에 있다. 길게 이어지는 향어도를 걸어 정자각에 이르니 어느새 능이 목전이다. 효종 1년 풍수지리상 최고의 길지를 찾아 천장(遷葬)한 것으로 조선 최초의 합장릉으로 알려진 영릉. 도래솔을 걸어 봉분인 능침으로 간다. 능에 가까워진 만큼 가슴 속 울림도 커진다.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내 나라 글을 창제해 준 왕과 학자들에 대한 감사 때문이리라. 조선의 왕이면서 철학자, 발명가이자 문인이기도 했던 세종의 능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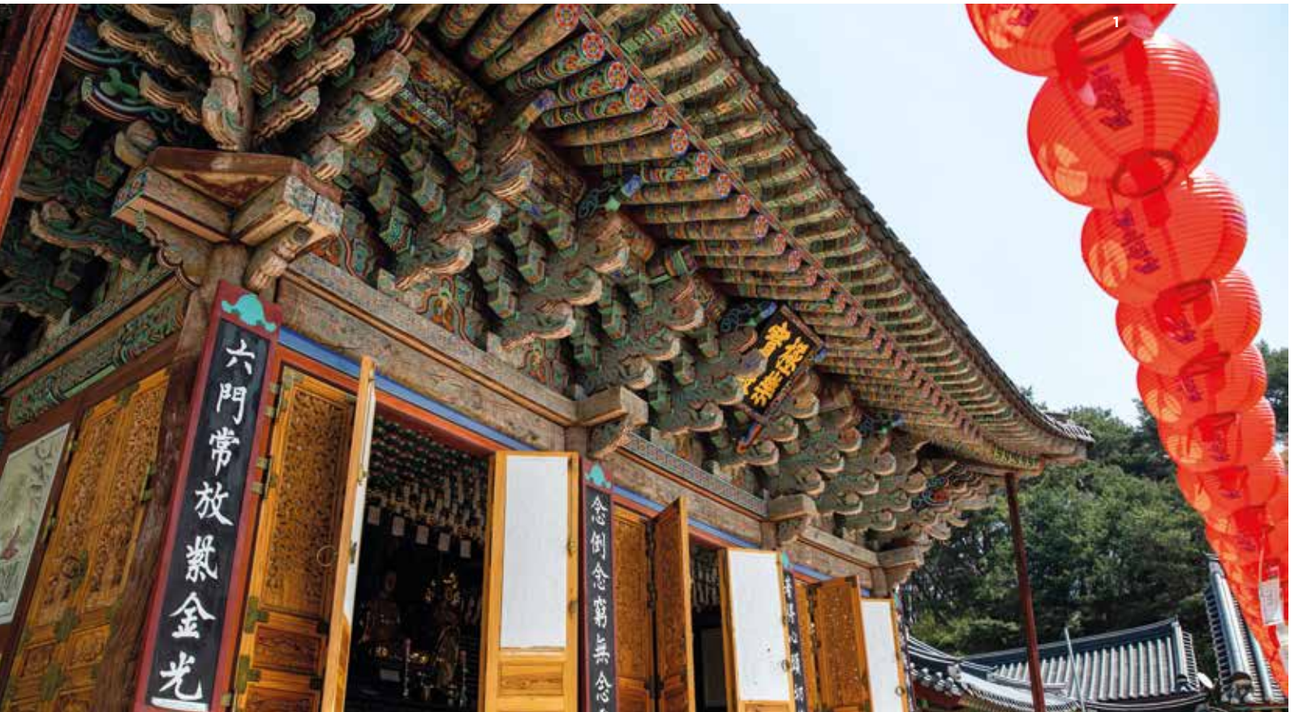
'사람마다 쉽게 익혀 문자 사용을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훈민정음 구절과 더불어 솔숲을 지나온다. 굽은 소나무가 심양에 억류되었을 당시의 심정을 적은 효종의 심양회상문(瀋陽回想文)을 불러온다. '지난 시절 괴로움이 오늘의 즐거움이 되리라'며 조선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던 효종의 말이 훈민정음에 덧대어진다. 위아래로 놓인 효종과 인선왕후의 쌍릉이 예송논쟁이라는 아픔을 전해온다. 300년 수령을 자랑하는 회양목을 지킴이 삼아 선 원형 재실의 굳건함이 솔잎이 남긴 따끔거림을 매만져 준다.

세종대왕의 명복을 비는 사찰, 신륵사

영릉을 나와 신륵사로 간다. 신륵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7일 공양기도로 만든 절로 알려졌다. 원효대사가 기도를 끝내자 아홉 용이 연못에서 승천하였다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고려말 고승 나옹화상이 입적한 천년고찰로도 유명한 신륵사는 열 점도 훨씬 더 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강과 나란히 걸어 신륵사로 들어간다. 구룡루를 지나 영릉의 원찰(願刹)이었다는 극락보전으로 들어간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삼존여래상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앉아 숨을 고른다. 그 옛날 승천했다는 용이 여객(旅客)을 마중 나오기라도 한 듯 신륵사에 담긴 바위와 물의 이야기가 불전(佛殿)을 넘실거린다. 그 부드러운 흐름이 긴장해 굳어 있던 어깨를 풀어준다. 바람의 손을 잡고 극락보전을 나온다. 신륵사 다층석탑을 한 바퀴 휘돈다. 깨지고 마모된 돌을 이고서도 묘한 안정감을 뿜어내는 석탑에서 세월의 굳건함을 읽는다. 경내를 돌아 나옹선사의 사리탑을 만난 다음 이른 곳은 다층 전탑 앞이다. 흙으로 구운 벽돌로 만든 다층 전탑의 투박한 웅장함 위로 강바람이 물결처럼 덮쳐온다. 시간의 주름이 겹쳐진다. 주름 마디마디에 사연이 있고 사람이 있다. 여주의 살아있는 숨결을 들이마시고 있는 이 순간 또한 역사가 되어 남겨지고 있으리라.

명성황후 생가에서 매만지는 역사의 주름

마지막 여행지는 명성황후 생가다. 아픔과 설움이 되어 남은 역사 그 또한 우리의 살이고 피이며 뼈일 터. 명성황후의 생애와 목이 마르도록 살아있음을 외쳤던 백성의 시간이 담긴 기념관을 둘러나온다. 인현왕후와 명성황후가 기거했던 집인 감고당으로 발을 들이민다. 안국동과 쌍문동에서 보낸 감고당의 시간이 여주에 뿌리를 내려 있다. 겹쳐진 시간을 건너와 생가로 들어간다. 초상화가 알려오는 주인의 부재가 침묵의 역사가 전해오는 말을 귀에 남기고 간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애국이라고 했던가. 모양새는 달라도 그 마음은 하나였을 터. 장소와 시간이 포개져 있는 땅 여주에서 역사의 주름을 매만진다. 흩날리는 민들레 씨에서 시간의 날갯짓을 읽어내고자 함은 여행객의 지나친 감상인 걸까.



1 신륵사
2 세종대왕 영릉과 효종대왕 영릉을 이어주는 왕의숲길
3 명성황후 기념관





행동하는 소비자들, “나는 소비로 세상을 바꾼다”

글 _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일방적인 구매에서 벗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견 표출과 견제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문제 있는 제품과 브랜드에 불매운동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기만적 할인 등에 대한 대응을 넘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횡포, 가격 담합, 허위과장 광고, 이익에만 급급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기업, 고객과 동행하지 않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외면받은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최근 불매운동 사례를 살펴보면, A 제약회사의 ‘성차별 면접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은 여성 지원자가 회사 측에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온라인에선 해당 기업의 상품들을 공유하며 불매하는 행동이 취해진 것이다.

앞서 2019년에는 당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매우 거세게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본 기업 목록이 배포되었고, 현재까지도 ‘노재팬’ 불매운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쓰비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있었다.

역사 왜곡 드라마의 폐지도 큰 이슈였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게시 이틀 만에 약 20여만 명의 동의를 얻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동북공정으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드라마 2회분 방영 내용이 문제가 됐다. 충녕대군이 서양 구마 사제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피단(삭힌 오리알), 중국식 만두가 등장했고, 중국풍 의상을 입은 장면이 논란이 되었다. 태종과 양녕대군, 충녕대군에 대한 묘사도 실제 기록과 거리가 있는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소비자들은 이 드라마 관련 광고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움직임을 보였고, 광고주들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제작 지원을 철회하자 결국 드라마는 방영 2회 만에 폐지되었다.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불매운동

요즘 대부분의 불매운동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통해 시작된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의 공분과 질타가 한데 모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불매운동을 이끌고 있다. 단순히 불매운동을 넘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시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사소한 불만이 공론화를 이끌고 다소 과격한 형태로 사태가 확산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최근 기업들도 소비자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으며, 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성 및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연금기금 같은 거대 투자자들까지 ESG 경영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ESG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결과 기업은 환경이나 인권, 노동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행동은 ‘사 주기 운

동'으로도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직은 구매운동보다 불매운동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변화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자는 운동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서울 홍대의 한 치킨집에서 시작된 '돈쭐(돈으로 혼쭐낸다는 뜻의 신조어, 좋은 일을 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 행렬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연쇄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어린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제공한 가게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치 소비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행을 공유한 것이다. '돈쭐을 내주고 싶다'며 120마리의 치킨을 사서 아동복지 시설에 전달한 소비자, 주문만 하고 치킨은 받지 않겠다는 소비자 등 몰래 선행하는 것이 미덕이던 이전과 달리,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행을 알리고 가치 소비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화훼농가 살리는 '1인 1화분', 지역 내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한 뒤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착한 소비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행동이 기업을 바꾼다

가치 소비에 열광하는 젊은 소비자들은 차별적인 것과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다고 생각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소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과거 집단적 사고방식이 강조되고, 소신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비 활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소신 소비, 가치 소비, 착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제품생산 과정의 윤리성, 제품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매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착한 기업, 착한 소비,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익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내는 것도 감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동, 소비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이나 빈곤 같은 사회 문제를 제품 판매에 연결해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마케팅 전략도 그 예다. 평소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하는 방식에 호응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 탄생을 위해 기업의 공식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소비자의 정보력과 지식이 기업 내 전문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힘이 막강해져 가는 것이다. 일방적인 구매에서 벗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견 표출과 견제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가치 소비의 철학이 점점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낀 만족과 보람이 미래 그 회사와 브랜드를 소비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을 격려하고 혼내주는 소비자, 소비자가 행사하는 권력,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HONORARY REPORTER

FOCUS 01

플랫폼 '온학교.com' 첫 수업 현장

매일 저녁 7시 학년별 실시간 원격수업 이뤄져

양만주 명예기자

"학교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야 할 4월의 학교. 긴장감과 설렘으로 새학기 학생들을 맞이했던 학교는 다시금 불어온 코로나19 유행의 바람에 잇달아 교문을 닫고 있다. 등교수업을 확대했던 학교들은 다시 교문을 걸어 잠그고,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초등 원격학습 지원 플랫폼 '온학교.com'을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매일 저녁 7~8시 하루 2교시 학년별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학교.com'은 '모든 학생을 위한 따뜻한 온라인 학습 공간'의 뜻으로 지난 1~2월 방학동안 시범적으로 학년 말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학습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저녁 7시 종이 울리고 학년별 '온학교.com' 유튜브 채널에서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실시간 원격수업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다. 주소창에 '온학교.com'을 입력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여 더욱 많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날 6학년 실시간 수업에서는 자발적으로 '온학교.com' 운영에 참여한 지도교사가 연신 학생들의 댓글을 읽어가며 열정적으로 국어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원격수업 부작용을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격으로 학생들을 마주한 교사들은 만감이 교차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첫 수업을 진행한 강신현(경북 예천초) 교사는 "기대도 되고,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실시간 원격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니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학교 수업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온학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온학교.com'에서는 유튜브 댓글, 패들렛, 구글 설문 기능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하여 우수 참여 학생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지나간 수업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CUS 02

두근두근, 신규발령 교사의 3월 생존기

홍지희 명예기자

봄 꽃송이가 그 봉우리를 활짝 피우고 내년을 기약하며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4월 초 어느 날, 2021년 3월에 교사로서 첫 발령을 받은 신규 선생님과 지난 3월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제법 큰 연포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조연수 선생님<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선생님,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확인했던 순간의 마음과 근무학교를 알게 된 직후의 마음이 궁금해요.

A.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은 만큼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확인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지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고 발령지를 알게 된 직후에는 학교 시설이나 교원 수, 위치 등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았습니다. 첫 교직 생활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 친구와 함께 정식 출근을 하기 전에 학교에 방문해서 둘러보기도 했었습니다.



Q. 발령 후, 한 달 동안의 교직 생활을 한 문장 혹은 단어로 표현한다면?

A. '전쟁 속 꽃 한 송이'입니다. 학교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전날에는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자료를 찾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구안하는 등의 수업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 학생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수업도 해야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중재도 해야 하고, 생활지도도 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해야 할 업무와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전쟁같이 바쁜 교직 생활이지만, 잠시 여유가 생길 때면 제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들어줄 때, 제가 준비한 수업을 재밌어하고 학습 목표에 도달한 것이 느껴질 때, 저에게 다가와서 조잘조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저를 향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등등의 순간들이 저의 마음속에 꽃 한 송이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Q. 교육 실습하면서 그려봤던 '미래의 나의 교사상'은 어떠했나요?

A. 부드럽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카리스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무한한 사랑과 친절함으로 아이들을 대하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Q. 어떤 연수(주제/내용)가 신규 발령 교사에게 도움이 될까요?

A. 첫째, 나이스 사용 방법 연수, 공문서 작성 방법 연수 등 업무에 관련된 연수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대학교나 교육 실습 때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업무를 해야 할 상황에 닥치면 굉장히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방법만 알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일도, 기본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헤매다가 2~3시간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된 연수입니다. 사실 교육대학교나 교육 실습 때 스스로 수업하고,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생활지도는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생활지도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규 발령을 받고 담임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활지도입니다.

Q. 학교에서 신규교사라 배려받고 도움받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초반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멘토-멘티제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만, 선생님들 역시 업무에 바빠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짧은 시간이라도 신규교사가 모르는 것을 마음껏 물어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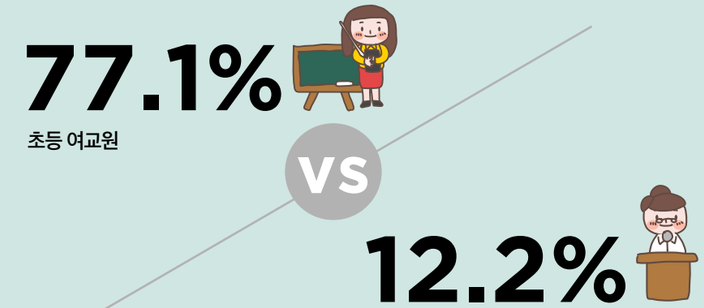
Q. 전국의 신규 발령 교사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전국의 신규 발령받으신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너무 설레고 기뻤지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적응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서 일어나기도 하고, 모둠활동이나 짝활동에도 제약이 있는 등 더욱더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때, 저는 주변 선생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고, 도움도 요청해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에너지도 얻고 행복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제자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드시고 몸 건강, 정신건강 모두 잘 챙겨서 행복한 1년 함께 보내봅시다. 선생님의 첫 교직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조 선생님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그 시간부터 발령 후 한 달까지의 시간 동안 본인이 겪은 일, 생각들을 깊이 숙고하며 이야기해 주었다. 조 선생님을 보면, 잊고 있었던 신규발령 때의 피곤함이 저절로 떠오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서 저녁도 못먹고 잠들어 버렸던 그 일 년간의 시간들이 말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신규발령, 그 첫 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전국에 있는 모든 신규 발령 선생님들께 마음 가득 응원을 보낸다.

77.1% vs 12.2%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간혹 초등 6년 내내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성비제한을 둘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그동안 여교원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교육관리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학제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980년대만 해도 초등 남교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이후 점차 여교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1990년에 여교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중학교 여교원의 경우 1980년에는 전체 교원의 32.8%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 49.8%로 절반에 가까워졌으며 2020년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의 70.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교원 수가 1980년 8,729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교원의 17.1%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의 54.8%를 차지했습니다.

교육관리직(교감, 교장)에서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여교원 비율이 2005년 14.6%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초등학교 교감 여교원 비율이 57.1%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에서의 교육관리직 여교원 비율은 2000년에 8.9%(교감), 8.7%(교장)에 머물렀으나 2020년에는 39.9%(교감), 27.8%(교장)로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관리직 여교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10%(교감 19.6%, 교장 12.2%)대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 자료출처_ 202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